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 로컬푸드 접목 '야생성' 콘텐츠 개발 높은 점수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지난 9일,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2016 제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 축제 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지역농산물이 '로컬푸드'를 접목하여 자연·생태문화가 지닌 '야생성'이라는 특장적인 콘텐츠 개발에 높은 점수를 얻어 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작년 와일드푸드축제는 2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등 대표적인 가을 음식축제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올해 열리는 제6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천렵과 화덕체험, 캠핑 등 다채로운 체험과 메뚜기, 개구리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확장 및 타 축제와 확연하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음식 개발에 주력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완주군 대표 축제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유망축제)로도 2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콘텐츠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축제관광과 경제, 콘텐츠, 예술, 전통 등 부문별 심사를 진행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 것으로 올해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를 비롯해 19개 축제가 수상 축제로 선정되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난해 완주군 신생아수 증가세 전환

2015년 출생아수 915명  
2014년보다 128명 늘어  
도내 시군서 가장 높아

지난 2012년 이후 감소하던 완주군의 출생아수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9일 완주군은 2015년 출생아수가 91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787명에 그쳤던 지난 2014년에 비해 128명(16.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완주군의 출생아수 증가 규모는 순창군(43명), 익산시(25명), 진안군(6명), 정읍시(4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그간 완주군의 1년 출생아수는 2011년 10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었다.

2012년 979명, 2013년 812명, 2014년 787명 등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369 보육 프로젝트)과 산후조리 건강 프로젝트, 영양플러스사업, '해피맘 파워맘 출산교실' 등 다양한 출산정책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신생아수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완주군은 369 보육 프로젝트를 통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장려금을 총 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첫째 아이 출산시에도 30만원, 둘째 아이 출산시에는 7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6세부터 9세까지의 셋째아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산후조리 건강 프로젝트(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를 통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봉동 둔산지구와 이서 혁신도시로의 젊은 층 유입도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수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완주군의 출생아수는 도내 4번째 규모인데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아이 돌봄서비스가 큰 지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며 369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 및 보육정책을 펼쳐 여성이 담당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청림 나눔방' 반부패 마인드 확산 '톡톡'

군 새울행정시스템 내 운영  
게시물당 30~40회 조회

완주군이 청림 마일리지 제도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청림 나눔방'이 공무원의 청렴 마인드 확산에 특목한 기여를 하고 있다.

9일 완주군은 각 부서 및 직원 개인의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동기부여 등을 위해 청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림 마일리지 제도는 행동경량 실천, 공직윤리의식 향상 부패방지정책 추진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중 '청림 나눔방' 참여를 통해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림 나눔방은 군 새울행정시스템 내에 별도의 카테고리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개설된 청림 나눔방에는 이달 초까지 17건의 청림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게시물은 청림과 관련한 여주시(청

림연극) 등 타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 정약용·안창호 등 선조들의 명언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각 게시물당 30~40건의 조회수를 보이면서 청림 나눔방이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 적잖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15일에 올라온 '철계 용역 추진 관련 공동계약 업무 안내'란 게시물은 무려 11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행복버스' 운행

### 천천면 17개 마을주민 대상

장수군은 벽지·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버스업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행복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버스'란 국토교통부 지역 행복생활권선도사업의 일환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 공모사업'에 장수·무주·진안 3개군이 연계 응모해 2015년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운행된다.

군은 무진장여객주식회사에 콜센터를 구축하고 11인승 승합차를 천천면소재지에 상주시키는 등 2일부터 천천면 지역 내 주요 간선 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버스'를 운행 중에 있다.



행복버스는 각 가정에서 버스회사에 탑승시간과 장소를 콜센터로 요청하면 일정주기로 임시노선이 편성돼 천천면소재지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이 장수·장계 등 타 지역으로의 환승이 필요한 경우 환승권을 발행하는 환승체계도 갖췄다.

장수군은 '행복버스'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벽지·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무허가 축사 합법화 총력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관내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내 축산 농가들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관 설치, 읍·면 플래카드 게시와 축산농가에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 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설천면주민자치센터에서 외식업소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무주군, 외식업소 경영개선교육 실시

### 내일까지 설천주민센터서

무주군이 2016 올해의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2017 무주 WI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무주읍 최북마을 관 다목적영수관과 설천면주민자치센터에서 외식업소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군이 주최하고 한국외식업무주군지부(지부장 서병국)와 (사)무주군관광협의회(회장 맹갑삼)가 주관하는 것으로 무주군 관내 외식업소 운영자와 창업희망자 등 1백여 명이 수강 중이다.

수강생들은 한솔외식연구소 & 한솔외식창업이카데미 최영채 강사로부터 △외식업소 경영자 마인드와 △효율적 매장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

육받고, 강기우, 박상덕 강사로부터 △온라인(SNS)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분야를, 김나위 강사로부터는 △接客 서비스 향상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수강생들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군 무주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온라인 홍보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어 좋다"며 "열심히 교육을 받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 무주군의외식업 발전과 무주군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외식업소 경영개선 교육생들에게는 한솔외식연구소 & 한솔외식창업이카데미에서 인증한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1:1 외식업 개발매장 컨설팅 선정 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마을 CCTV 245대 점검

무주군이 주민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방범, 교통, 재난재해 CCTV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일원화한다.

6월까지 행정리 150개 마을입구와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설치된 CCTV 중 노후가 심한 장비를 교체하고, 200만 화소까지 성능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 106개 마을 방범용 CCTV 245대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차 width 4층에 815.1㎡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군은 12월까지 11억 8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제센터와 기록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다.

군 관내에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는 범죄예방용 157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337대, 농촌마을 CCTV 171대 등 총 665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이승하 정보통신 담당은 "CCTV 설치 운영 목적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요즘은 영농철이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데 CCTV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장수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는 5월 8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25%(280백만원)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일제징수에 들어갔다.

김윤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액 재산 압류, 환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집중 관리로 고질체납을 방지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변호관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이항기)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세부일정은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상임위원회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남기)에서 진안군 행정시책 준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을,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갑수)에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사업과  
063-430-2951